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사순절 "재의 수요일" 새벽예배 안내

* 일시 : 2월 18일(수) 오전 6시 / 장소 : 대예배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창 3:19)
 사순절의 시작, 회개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 교인총회

일시 : 2월 22일(주일) 1부, 2부 예배 후 * 장소 : 대예배실
 * 2025년 재정 결산 및 2026년 예산 보고(재정위원회)

• GMC 한미연회 정회원 목회자 수련회

일시 : 2월 9월(월) ~ 11일(수)
 장소 : 라스베가스 글로벌감리교회

• 일대일 제자훈련 양육자 과정 모집 안내

3월부터 8주간의 일정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양육자반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헌신된 남플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장소: 교회 / * 문의: 담임목사, 유철우 집사

• 중보기도회

일시 : 2월 11일(수) 매주 수요일, 오전 6시 45분 / 장소 : 초등부실

• 어머니 기도회

일시 : 2월 11일(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초등부실

• 성가 대원 모집

1부, 2부 예배의 성가대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에 함께 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문의: 1부 호산나찬양대 사역장: 이미셀 권사/954-326-0397
 2부 할렐루야찬양대 사역장: 이해영 권사/954-701-2128

• 세금보고를 위한 현금 내역서 안내

* 현금내역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재정부실에서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 집주소로 신청하신 분들은 우편발송 되었습니다.

교육부 소식

•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Sunday Service @ 10:30 am

예배 및 모임 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사명 선언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양육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지난주 현금 통계 : 총 합계 \$42,830.00

일반현금 \$20,455.00	십일조: \$8,808.00	월삭예배: \$2,980.00
	감사: \$510.00	주일: \$4,695.00
	약 정: \$530.00	기타: \$3,462.00
건축현금 \$530.00		
선교현금 \$21,845.00	목 장: \$245.00	증남미: \$21,600.00

**** 온라인 현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 P. the Poor in Spirit*
- O. Oneness in Lord's Hand*
- E. Encouragement in Christ*
-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주현절 다섯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428장(통488)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기도 Prayer / 전정환 권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목자의 노래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상광고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 삿(Judg) 7:1-2.....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 하늘에 속한 사람 >

A person belonging to heaven

▲ 파송찬송 Closing Hymn/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6년 2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2월 8일	1부	Ok목장	담당자	전정환권사	Unity
	2부			전정환권사	
다음주 2월 15일	1부	Ok목장	담당자	박영희권사	베뢰아
	2부			조필환장로	

설교요약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6장에 기록된 것처럼,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 7년 동안 극심한 압제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조차 남기지 못할 만큼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고, 기댈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사라진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사기 7장 1절은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을 소개합니다.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운 자’ 라는 뜻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헐었기 때문에 얻게 된 이름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기드온은 담대하고 용맹한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억압에서 구원할 인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작은 자”, “연약한 자” 로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기드온에게 영광이 아니라 큰 부담이 되었고, 그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기대와 자신의 인식 사이의 괴리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임포스터 증후군’ 과도 닮아 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은 하룻 샘이었습니다. 하룻 샘은 ‘떨림과 두려움이 솟아나는 샘’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에서 모인 군대가 아니라, 두렵지만 부름 받아 모인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문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작게 느껴지는 ‘위협 과잉 지각 상태’ 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 군사의 수를 줄이셨고, 결국 기드온에게 남은 숫자는 300명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밤에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이미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도다.”



<설교 요약>

하나님은 아직 싸우지 않은 전쟁을 이미 끝난 일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는 기드온을 미래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의 시간으로 옮기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싸운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강에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회복될 때, 우리는 두려움의 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 소그룹 나눔 질문

-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숫자나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싶은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 기드온처럼 연약함을 느끼면서도 순종하려 했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어디였습니까?
- 최근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셨다’ 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이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 입니까?
- 하룻 샘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은혜와 승리를 붙잡았던 경험을 나눠보세요

금주 애찬 섬김			
	금주 (2월 8일)		다음주 (2월 15일)
	김세희, 김동규 권사		Patsy, Bill W.
	어머니추모		결혼기념
	Unity		베뢰아